

일차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주치의 제도의 자발적 도입

- 진화게임을 통한 의사 집단의 균형을 중심으로 -

서울대 의학과(석1) 임 민 혁
서울대 생명과학부(3) 임 현 경

[요약]

보건의료재화는 공공재로서, 완전한 시장 원리를 적용할 수 없는 제한점이 있다. 모든 사람은 건강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기관 간의 당연지정제를 통해 전 국민이 보건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인구 노령화를 통해 급속한 의료비 지출이 예상되고 있어 보험 재정을 건전화하는 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 재정을 확충하고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며 소모되는 의료비의 지출을 줄일 필요성이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1차, 2차, 3차의 의료기관 모두 서로 보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서로 경쟁적인 입장에 있기 때문에 중복 및 과잉 진료의 위협에 항상 놓여있다. 보건의료의 재화의 특성상 소비자(환자)의 무지와 정보의 비대칭성은 의사를 대리인의 역할도 수행하도록 하므로, 공급자 유인 수요를 유발하여 보건의료비를 증가시킬 수도 있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여 의료 쇼핑의 상황도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 때 일차의료체계를 확립하여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환자 혹은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고 협력적인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성한다면, 중복 및 과잉 진료의 빈도를 줄여 보건의료 자원의 분배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일차의료의 경우 질환의 치료에 앞서 예방과 조기 진단을 목적으로 하므로 치료를 위한 미래의 의료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현재의 적은 부담을 통해 건강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의료비의 지출도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

이러한 일차의료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문지기(gate keeper)역할을 할 수 있는 주치의 제도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주치의는 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맥락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하게 되므로 보건의료서비스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보건의료 재화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 등도, 의료서비스의 질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의료 소비자의 단골화를 유도하여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이러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어 의료서비스 공급자인 의사의 역할은 중요하다. 이를 강제적으로 시행하기 보다는 시장의 흐름에 맞게 자발적으로 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면, 제도 변화 및 도입에 따른 혼란과 반발은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진화게임 분석에 의하면 주치의로서, 혹은 비주치의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의사들의 집단이 공존할 수 있는 균형점이 존재하고, 이러한 균형점은 각 집단에서 얻는 의사의 보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현재 완전한 경쟁체제인 의료체계를, 경쟁과 협력의 두 가지 방안으로 보완할 수 있다. 비주치의 집단의 구성원 사이에서는 경쟁을 통해, 주치의와 비주치의 집단의 구성원 사이에서는 일차의료와 상급의료의 협력을 통한 체계적 협진을, 주치의의 구성원 사이에서는 각 지역별로 지역주민의 일차적인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시장을 분배할 수 있다면 의료공급자인 의사들의 집단은 자발적인 균형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는 시장원리의 힘을 빌려 주치의 제도를 완만하게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이러한 균형점에서 의료공급자에게 지출하는 비용을 현재보다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주치의 제도 도입과 더불어 보험 재정의 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방향이 된다. 다만 현재에도 저수가 체제로 인하여 의료서비스 공급자들은 제도를 거부할 유인이 있으므로, 수가를 무조건적으로 낮추는 것보다는 수가를 현실화하되, 일차의료체계를 비롯한 의료체계의 완비성을 구축하여 중복/과잉 진료에 해당되는 지출을 줄이고 보험 재정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각 집단의 의사가 얻는 보수는 보수지불 방식과 연관성이 높으므로, 주치의 집단의 경우 인두제 기본으로 하여 행위별 수가제를 추가하고 일정 건강수준을 달성했을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볼만 하다. 비주치의 집단의 경우에는 보험 진료와 비보험 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데, 보험 진료의 경우에는 총액계약제와 행위별 수가제를 병행하여 재정절감의 측면과 새로운 의료기술을 도입하는 부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서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데에 의의가 있다. 즉, 공공성은 제도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시행으로만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경제 주체에 따라서도 시장과 제도의 조건에 따라 자발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방향

제2절 연구의 방법

제2장 보건의료서비스의 특성

제1절 소비자(환자)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행태

제2절 공급자(의사)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요인

제3절 지불자(보험공단)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통제

제4절 소결

제3장 주치의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

제1절 우리나라의 의료체계 및 현황

제2절 진화게임 분석을 통한 주치의 제도의 도입 가능성 고찰

1. 주치의와 비주치의 집단의 균형 상태의 존재

2. 비주치의/주치의 균형의 현실적 도입 가능성

제3절 주치의 제도를 통한 일차의료체계의 구성

제4절 소결

제4장 결론

